

2K 활약에 3N 체제 흔들... 1위 독주 '넥슨'도 긴장

(크래프톤·카카오게임즈) (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

국내 게임업계 1분기 실적 공개

넥슨 전년비 36% ↑... 최대 매출 엔씨소프트·넷마블 신작 부재에 ↓

크래프톤 3% 성장하며 2N 제쳐 카카오게임즈 신작 반영... 6.45% ↓



/각사

국내 게임업계의 올해 1분기 실적 공개가 대부분 마무리 됐다. 역시 넥슨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등 큰 기대를 빚나가지는 않았다. 다만 눈에 띄는 점은 크래프톤이 엔씨와 넷마블의 영업이익을 제쳤다는 점이다.

이대로 국내 게임을 대표하던 3N(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체제가 없어질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 3N중 넥슨, 2K중 크래프톤

1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올해 1분기 매출 1조 1920억 원, 영업이익 540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6%, 46%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한 셈이다.

넥슨은 "피파온라인4, 던전앤파이터 등 대표 PC 라이브 타이틀의 안정적인 성과와 피파모바일, 블루 아카이브 등의 안정적인 매출과 모바일 게임의 흥행이 실적을 이끌며 역대 최고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엔씨소프트는 매출 4788억원, 영업이익 81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각각 39%, 67% 급감한 수치다. 이는 리니지W 매출이 출시효과를 누리지 못하면서 감소한 결과다. 아울러 1분기 매출을 대변해 줄 신작이 부재했다는 점도 실적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넷마블은 5분기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넷마블의 1분기 매출은 6026억원, 영업손실 28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2.3%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더 증가했다.

넷마블도 엔씨와 마찬가지로 신작부재와 기존작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이

유로 들었다. 여기에 경쟁사와 2배 이상의 인건비, 마케팅비, 수수료 등 지출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는 점도 존재한다.

게임 업계종사자는 "다양한 장르를 통해 신작을 다수 선보인 넥슨의 활약은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기록할 것"이라며 "반면 엔씨와 넷마블은 지속적인 신작부재와 기존작들의 매출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 경쟁작들이 대거 출시를 앞둔 상황에 경쟁력을 위해 탄탄한 구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3N의 희비가 갈린 가운데 신흥 강자로 떠오르던 2K(카카오게임즈, 크래프톤)의 활약이 눈에 띈다.

특히, 2K중 크래프톤이 올해 1분기 엔씨소프트와 넷마블을 제치면서 업계 이목을 끌었다.

크래프톤은 매출 5387억원으로 전년 대비 3% 성장하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2830억원으로 9.3% 감소했지만 신작부재를 감안하면 선방한 수치라는 평이다.

특히 크래프톤의 PC 배틀그라운드 유료화 콘텐츠 전략이 매출이 견인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곧 탄탄한 IP의 저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기에 해외 매출이 94%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내용을 뒷받침한다. 실제, 크래프톤의 올해 영업이익은 넷마블과 엔씨소프트를 제쳤다.

카카오게임즈는 1분기 매출 2492억원, 영업이익 113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6.45%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73.05% 줄었다. 올해 3월 출시된 아키에이지와 에버소울 등의 신작들의 성과가 일부 반영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오딘:발할라 라이징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영향도 크다.

◆ 현재 1위 넥슨 안심할 수 없어

이처럼 3N과 2K의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하반기 신작이 대거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1위를 독주하고 있는 넥슨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실적반등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분위기도 앞서 상황을 뒷받침한다.

특히 넷마블은 그간 지속된 신작부재에서 탈피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 판호라는 카드도 꺼내들 계획이다. 넷마블은 2분기 '신의 탑: 새로운 세계', '나 혼자만 레벨업:ARISE', '아스달 연대기' 등 멀티플랫폼 기반의 신작 9종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아울러 중국 판호를 발급받은 게임을 현지에 출시할 계획이다.

엔씨는 리니지 시리즈의 대규모 업데이트에 집중한다. 또 PC·콘솔 신작 '쓰론 앤 리버티'(TL)의 베타테스트(시범서비스)에 기대를 걸고 있다.

크래프톤도 디펜스 타격을 필두로 글로벌 퍼블리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에 총력을 다한다. 또 자체 개발 게임과 크리에이터 발굴을 극대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카카오게임즈도 '아레스: 라이즈 오브 가디언즈', 2D 픽셀 그래픽의 횡스크롤 액션 RPG '가디스 오더', 블록체인 게임 '보라베틀' 6~10종 등 다채로운 신작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게임업계 종사자는 "게임 하나가 회사를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있듯 관측은 신작이 흥행하면 탄탄한 IP를 통한 실적 효과는 대단하다. 지난해부터 부진했던 실적의 반등을 꾀하기 위해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다. 현재 1위인 넥슨도 안심하기는 어렵다. 업종 특성상 지각변동의 호흡이 짧기 때문.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놔야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LS일렉트릭 "베트남 1위 다지고 亞에 각인"

'일렉트릭 에너지쇼' 참가 스마트 전력솔루션으로 현지 맞춤형 제품 공개



LS일렉트릭 '2023 일렉트릭에너지쇼' 전시 부스 조감도.

LS일렉트릭이 아세안 전력 시장에 차세대 전력 솔루션을 선보인다.

LS일렉트릭은 17일부터 19일까지 베트남 하노이 ICE에서 열리는 2023 일렉트릭 에너지쇼에 참가한다고 15일 밝혔다.

LS일렉트릭은 '스마트 전력솔루션으로 열아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메인 콘셉트로 참가했다. 이를 통해 저압 전력기기 시장 점유율 1위를 더 공고히 하고 아세안 전력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부스는 108㎡ 규모로, ▲그린 에너지(Green Energy Solutions)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Solutions) ▲스마트 배전(Smart Distribution Solutions) 등 3개 테마를 중심으로 현지 시장 맞춤형 제품을 공개한다.

특히 차세대 그린 스마트 전력 솔루션을 전면에 배치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직류(DC)·교류(AC) 제품 솔루션을 대거 소개한다.

아울러 LS일렉트릭은 해상풍력발전 맞춤형 ▲친환경 변압기 ▲g3 GIS(가스절연개폐기) ▲친환경 전력변환기(리액터) 등을 전시한다. 해상풍력단지에는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친환경 절연소재 적용 전력기기 사용이 필수적으로 현지 고객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

로 기대된다.

LS일렉트릭은 최근 국내 최초로 개발한 친환경 g3가스 적용 170kV급 가스절연개폐기(GIS) 상용화에 성공하고 사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g3가스 적용 친환경 가스절연개폐기는 절연 가스를 기존 SF6(육불화황)가스를 친환경 g3가스로 대체해 지구온난화지수(GWP)를 90% 이상 획기적으로 절감한 제품이다.

전력 관리 플랫폼 '그리드솔 큐브'(Gridsol Cube), 전력 설비 자산 관리 최적화를 가능케 하는 자산관리 플랫폼 '그리드솔 AMS'(Asset Management System) 등 디지털전환(DX) 솔루션도 함께 전시한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전력기기 수출 3위 국가로 성장한 베트남 시장 점유율 1위 지위를 공고히 하고 아세안 고객에게도 기술력을 확실히 각인 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지 전력시스템 사업에 투자와 맞춤형 전략 제품을 앞세워 베트남과 아세안 지역 시장 확대에 속도낼 것"이라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LG U+, 인천 전세버스에 음주측정기 공급

운송사업조합·아이티엠티 협업 2000여 대에 도입... 운영 지원도



LG유플러스 임직원이 디지털 음주측정기를 시연하는 모습. /LG유플러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도 음주운전 차단장치 도입, 재범자 면허 영구박탈·차량 몰수 법안 추진 등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LG유플러스는 인천광역시 2000여 전세버스에 디지털 음주측정기를 공급,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강화해 나간다고 15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인천광역시 소속 전세버스에 음주측정기를 도입하고 버스 관제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주식회사 '아이티엠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 전세버스 조합 사옥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은 LG유플러스 임방현 서부기업영업담당(상무), 인천 전세버스 조합 장병일 이사장, 아이티엠티 양연

희 대표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LG유플러스와 아이티엠티는 인천 전세버스 조합 산하 41개 회원사, 소속 버스 2000여 대에 디지털 음주측정기 및 차량종합관제 서비스(DTG)를 공급하고 운영·관리를 지원키로 했다. 인천 전세버스 조합은 모든 산하 운수사에 시스템 설치 안내 및 협조를 구하고 아이티엠티는 시스템·기기 공급을, LG유플러스는 IoT 무선통신회선 공급을 맡는다.

/채윤정 기자 echo@

금호피앤비화학, 'ISCC PLUS' 획득

(국제 친환경 인증)

재활용 벤젠 사용한 5개 제품

금호피앤비화학이 자사 5개 제품에 대해 국제 친환경 인증인 'ISCC PLUS'를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ISCC PLUS 인증은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지침에 따라 제품 생산과정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해 부여하는 국

제 인증 제도다. ISCC는 투명한 심사 기준과 까다로운 인증 절차로 친환경 인증 분야에서 신뢰도가 높은 기관이다.

이번 인증을 통해 금호피앤비화학은 페놀, 비스페놀A, 에폭시 등 페놀유도체와 큐멘, 아세톤의 기준 원료인 벤젠을 저탄소 계열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벤젠은 페플라스틱 열분

해 처리 방식을 포함해 순환경제 달성 방식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금호피앤비화학은 올해 3분기부터 재활용 벤젠을 사용한 ISCC PLUS 인증 제품 공급을 점차 확대함으로써 고객들과 공급망 차원의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우성 금호피앤비화학 대표는 "당사의 ISCC PLUS 인증 제품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

KT엠모바일, '웹 접근성 품질마크' 획득

정보 취약계층 위해 8년 연속 갱신

국내 알뜰폰 1위 기업 KT엠모바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국가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 품질마크'를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KT엠모바일은 정보 취약계층의 다이렉트 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난 2016년도부터 올해인 2023년도까지

8년 연속으로 웹 접근성 인증을 매년 갱신 중이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 접근 약자가 웹 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웹 접근성 표준 지침을 준수한 우수 홈페이지의 품질을 1년 동안 인증하는 제도이다. /채윤정 기자